

‘서로에 대해 알아가요’

이리모현초-일본 도쿄 이즈미초, 온라인 공동수업 유네스코 한-일 교사네트워크를 플랫폼으로

이리모현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과 일본 도쿄 이즈미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온라인 공동수업을 가졌다.

이에 따르면 이리모현초등학교(교장 임미성)는 지난 21일 일본 도쿄 이즈미초등학교와 유네스코 한-일 교사 네트워크를 플랫폼으로 하는 ‘한·일 온라인 교류 수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업은 교육부 미디어교육 학생참여단을 이끄는 5학년 공후재 교사의 주도로 요시카 타케우치 교사와 협력해 마이크로 팀즈를 활용 한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날 수업은 교육부 미디어교육 학생참여단을 이끄는 5학년 공후재 교사의 주도로 요시카 타케우치 교사와 협력해 마이크로 팀즈를 활용 한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수업 주제는 1회 ‘서로에 대해 알아가기’, 2회 ‘우리 지역 소개하기’, 3회 ‘문화 소재를 활용한 공동체 의식 함양 활동’이다. 특히 3회



이리모현초등학교는 지난 21일 일본 도쿄 이즈미초등학교와 유네스코 한-일 교사 네트워크를 플랫폼으로 하는 ‘한·일 온라인 교류 수업’을 실시했다

수업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어능력시험 연구회와 함께한다.

한편 요시카 타케우치 교사는 일본 최대 교사커뮤니티인 TOSS(Teachers' Organization of Skill Sharing)에서 활동 중으로, 공후재 교사와 함께 다양한 방법의 국제교류협력을 통해 양국의 문화를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

임미성 교장은 “우리학교는 학생의 삶을 중심으로 두고 함께 배우고 스스로 실천하며, 삶의 힘을 기르는 교육을 지향한다”면서 “교육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교육과정과 수업을 핵심으로 바른 인성과 체력의 토대 위에 기초·기본 문해력과 디지털 문해력 교육, 국제교류 협력수업 등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지난 21일 오전 전북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서거석 교육감과 사립 일반고 학교장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감과 함께하는 교육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립학교 현장 목소리 청취

서거석 교육감, 사립 일반고 교장과 정책간담회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 대비 지원 방안 등 논의

서거석 교육감이 지난 21일 사립학교 교장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층 강당에서 사립 일반고 학교장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감과 함께하는 교육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서 교육감과 교장들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위한 지원 방안 △체제적인 대입 진학제도 지원 △방과후학교 운영 활성화 △균형 잡힌 인력 의식 함양 방안 및 사립 교원인사 정책 등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또한 수업 혁신을 위한 교사 전문성 신장 방안, 사립학교 신규교사 연수 운영, 심리·정서 위기 학생 지원 방안 등 현안들도 공유했다.

한편 서 교육감은 이날 도내 초·중 등 교장단과의 협의도 가졌다. 서 교육감은 “탄탄한 기초·기본학력의 토대 위에 미래역량을 함양하고,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진로·진학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앞으로 공·사립 차별 없는 지원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사학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 주요대학, 26일 유망기술 기술이전 설명회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부총장 겸 단장 조기환)은 26일 오후 1시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2022 전북권 대학 사업화 유망기술 기술이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마련된 이번 설명회는 전북대와 전주대, 원광대, 우석대, 군산대 등 전북지역 주요 대학들이 공동 주관한다. 이날 전북권 대학 유망기술 중 ICT(응·복합소재, 바이오, 농생명, AI, ESG) 분야의 8개의 사업화 유망기술을 발표하고 이를 포함한 총 29개의 우수기술이 전시될 예정이다.

전북대 산학협력단은 2015년부터 수행 중인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BRIDGE+) 사업의 노하우를 통해 빛을 보게 될 우수 연구개발 성과물을 공유한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기술사업화에 도움이 되는 각 대학들의 특허를 소재의 기술료로 판매하는 ‘소재 특허 판매전’도 마련돼 기업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소재 특허전에는 모두 305개의 특허가 판매될 예정이다.

특히 삼성전자 협력회사 협의회의인 협의회 세미나를 통해 대학의 우수 연구자와 기업 간 소통과 활발한 산학협력의 장도 마련됐다.

한편 기술상담 및 참가신청은 행사 전날까지 설명회 홈페이지(http://tbb-platform.com/?ho_id=2022B)에서 가능하며, 당일 행사장에 참석이 어렵더라도 온라인 기술상담을 통해 참가할 수 있다. /정은성 기자



전주교대, 전통음악 이수 발표회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춘)는 지난 20일 저녁 7시 30분 화랑관에서 전통음악 교육과정 이수 발표회를 열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발표회에는 재학생과 교직원, 지역주민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음악교육과 이상규 교수가 해설하고, 전주시립국악단 이민주 지휘자가 지휘를 맡았으며, 재학생 38명이 참여했다. 이리랑, 반달, ‘오빠생각’ 등 친숙한 노래들로 꾸민 단소 제주로 시작을 알리고 이후 ‘천년만세’, ‘타령’ 전통음악 합주, ‘도라지’ 2현 가야금 독주 등의 수준 높은 연주를 선보였다.

특히, 창작음악 ‘신밧노래’ 합주와 전통음악 교육과정 권하경 지도교사가 노래한 프로그램은 가을밤 정취를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박병춘 총장은 “전통음악 교육과정을 통해 쌓은 실력을 마음껏 선보인 학생들이 자랑스럽다며, “우리 대학교는 초등 교육현장에서 전통음악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3국 체제 전국적인 트렌드에 부합”

전북교사노조, 도교육청 조직개편 관련... “명확한 범무 분장”

전북교사노조는 지난 21일 전북교육청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명확한 업무 분장으로 3국 체제 전국적인 트렌드에 부합한다”는 논평을 냈다.

이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현재의 정책공보관실이 정책국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전국적인 트렌드에 맞는 3국 체제로 갈 것으로 보인다.

기존 1실 2국 13과에서 3국 18과로 변경하고 과의 명칭을 구체화시킨 점은 업무분장을 명확히 함으로써 업무 떠넘기기를 미연에 방지하고, 현장 교원들과 교육행정직간 부서의 씨앗을 제거하는 조직개편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장점이 있기에 타 시도 교육청들 역시 3국체제로 변경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직 개편안으로 늘어난 5급 이상의 간부 17명은 ‘행정 실무형 간부’가 되어야 한다. 결재만 하는 수동적인 업무 방식을 뛰어넘어 각 부서 간 업무를 대폭 통합하고, 업무 전반을 효율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교육청 직원들의 업무경감을 꾀해야 한다. 그래야 서거석 교육감의 목표인 전북교육청의 슬림화를 달성할 수 있

을 것이며, 학교 교직원들의 업무부담 역시 줄일 수 있다는 것

반면,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했어야 한다는 아쉬움도 표했다

전북교사노조는 “전북교육청의 조직개편은 학교 현장의 교원업무와 직결되기 때문에 교원관련단체에 조직개편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홍보하고, 의견청취를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날 논평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정책국은 서거석 교육감의 공약을 구체적으로 주도할 ‘국’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책국의 핵심 부서인 정책기획과의 과장은 학교 현장에 밝은 교원 출신으로 정해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구현하길 요청한다. 그린스 마트미래학교는 교육사실하기에 교육 직관점을 가진 인물이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단장이 돼야 한다. 시설업무의 관점이 아닌 공간혁신의 교육적 관점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간혁신의 과정에서는 현장교사들의 목소리가 배제되지 않도록 하되, 교사들이 시설업무에 얽매어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민주시민교육과가 학교생활교육과로 전환되는 것은 ‘민주시민교육’이 강조되는 2022교육과정의 방향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주적인 학교는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가치고, 그 동안 민주시민교육과는 유지돼야 한다. 따라서 민주시민교육과는 유지돼야 한다. 또한 교원노조를 담당하게 될 노사협력과에 교직에 대한 이해가 높은 교원 출신 장학사와 장학관을 배치함으로써 전북교육청과 교원노조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위해서는 교사의 수업연구, 생활지도 업무 학생상담을 위한 업무 시간 확보가 필수적이라면, 교사들이 현재와 같이 행정업무에 묶여 있지 않도록 서거석 교육감의 공약사항인 교원업무 축소를 위한 학교업무표준안 TF 팀이 조속히 꾸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폐루 국제감사연구소의 잔 크

‘전북대 등 공동운영 식물방역대학원, 농축산검역본부와 국제심포지엄

전북대와 경북대, 전남대에서 공동 운영하는 식물방역대학원이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함께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한국식물병리학회에서 마련된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전북대 김재수 교수의 ‘농약 처방 현황 및 병해충 관리의 제도적 조치’, 농림축산검역본부 김보림과장의 ‘국내 식품보호법 및 국가식물보호제도’라는 발표를 통해 병해충의 제도적 관리 필요성을 설명했다.

식물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 검역의 중요 역할에 대한 내용으로 임규욱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관은 ‘식물검역에서의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신용길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관은 ‘국내 식물검역을 위한 PCR 검사기술의 역사’를 각각 발표했다.

또 식물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첨단 기술의 현황과 미래를 열람할 수 있는 시간도 이어졌다. 이날 정래동



전북대와 경북대, 전남대에서 공동 운영하는 식물방역대학원이 지난 21일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함께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남대 교수는 ‘차세대 방역차단: 식물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첨단 진단 기술의 방향성’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다양한 최신진단 기술의 개발로 차세대 방역차단을 위해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폐루 국제감사연구소의 잔 크

메타버스 원격교육 환경 구축

전주대 ‘STARverse’ ... 이달 말 정식서비스 학사시스템 연동 수업예약 시스템 등 제공 Zoom과 같은 화상회의 기반 플랫폼 채택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최근 전국대학 최초로 학사시스템과 연동된 메타버스 원격교육 환경인 ‘STARverse’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STARverse는 강의실, 아티클, 세미나 등 게이미피케이션 플랫폼으로 구축된 교육 공간으로, 전국대학 최초로 학사시스템과 연동된 수업 예약 시스템과 출석 체크 기능 등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Zoom, Webex와 같은 화상회의 기반의 플랫폼을 채택해 교육적 소통을 강화하고, PC와 모바일에서 모두 구동이 가능한 차별 없는 교육 환경 제공에 중점을 뒀다. 시험운영 기간 중 STARverse에서 수업에 참여했던 정태승 학생(국어교육과 2년)은 “조별 모임을 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마련돼 있고, 교수님이 조별 공간을 다니며 피드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며 “특히 교수님의 아바타를 찾아 개 별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도 있다 는 점에서 기존 실시간 화상 수업

보다 상호작용이 편리해졌다”고 말했다.

STARverse 구축을 진행한 원격교육지원센터장 김보경 교수는 “Webex에서는 교수와 학생이 시간만 공유할 뿐 공간을 공유하지 못하나 STARverse에서는 강의실 공간과 교수 학생 개인별 아바타를 시각적으로 공유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학습자가 출석 체크, 영상 재생, 필기, 퀴즈 풀이 공간 이동 등 수업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확장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바타를 통해 교수 또는 동료 학생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서로에 대한 심리적 거리가 줄어들어 교육적 소통이 풍부한 원격수업이 가능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STARverse는 이달 말 정식 서비스할 예정이며,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공간 개선과 LMS 연동 등 지속해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정은성 기자

“미래교육, 발명으로 꽃 피워요”

전북과학교육원 발명어울마당

전북도교육청 과학교육원(원장 김정욱)은 22일 교육원 일원에서 ‘2022년 발명어울마당’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미래교육 발명으로 꽃 피워요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발명어울마당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형태의 발명활동을 체험하면서 발명 원리를 쉽게 이해하고, 발명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날 행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강의, 마당 체험마당, 관찰마당, 행복마당 등으로 진행했다. 특히 강의마당에서는 과학국립과학

관 이정모 관장이 ‘발명이 만들어주는 미래, 그 즐겁고 행복한 상상’이라는 주제의 특강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쉽고 재미있는 발명 이야기를 들려줬다. 또 AR, 코딩, 메타버스, 드론, 3D펜 등 34개의 발명체험부스를 운영했다.

김정욱 원장은 “학생들이 재미있는 체험활동을 통해 그 속에 숨겨진 발명의 원리를 이해하고, 발명에 대한 흥미와 유용성을 깨닫는 시간이 됐다”면서 “미래교육을 위한 창의·융합형 인재를 기르고 발명 대중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